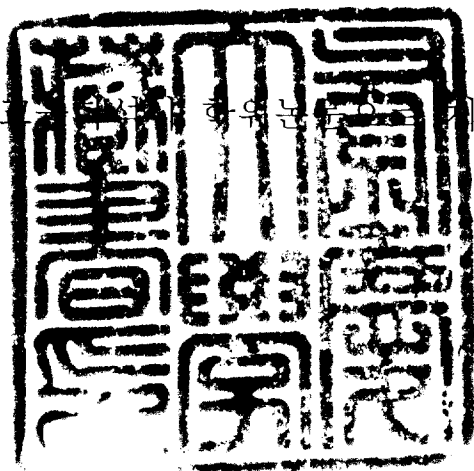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중등영어교과서에 나타난 격식성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전 춘 배

이 논문을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중 근

김중근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5년 8월 31일

주 심 언어학 박사 박 순 혁



위 원 영어학 박사 배 재 덕



위 원 영어학 박사 전 춘 배



목 차

Abstract	ii
I.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구성과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2.1. 격식성의 구분	4
2.2. 격식성의 특징	8
III. 자료분석 결과 및 논의	17
3.1. 연구대상 및 방법	17
3.2. 어휘	18
3.3. 구조	40
3.4. 일상생활의 기본 표현	63
IV. 결론 및 제언	67
참고문헌	69

A Study on Formality in Middle &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Kim, Jung Keu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English textbooks for middle and high schools are organized from the viewpoints of formality, especially formal or informal styles. The data from textbooks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lexis, structures and the basic common uses for daily life communication to see how the formal and informal uses are distributed in the textbooks.

Each formal and informal features are presented in theoretical sessions and the data from the six middle and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based on the 7th curriculum of Korea are analyzed by a data-based analysis metho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number of formal style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that of informal ones. In lexis and common use, however, more informal styles were found than formal ones, and more formal styles were used in structure, which implies that the current textbooks of middle and high schools, compared with the past ones, tend to include more informal styles.

Secondly, the number of formal styles did not 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neither did informal styl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firstly, due to the lack of data of

formal style in lexis and in common use, and informal ones in structure, teachers need to use and develop additional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to teach their students how to choose appropriate styles in a given situation.

Secondly, English teachers need to use various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from the early stages to help students learn formality in the similar order to that of native language acquisition.

The understanding of both formal and informal uses would help teachers to instruct students to choose the proper styles in the various situations.

I. 서론

1.1 연구의 목적

언어는 정보 교환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개인 및 집단간의 인간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아침 인사를 할 때 'Hi' 또는 'Good Morning'라고 하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Hello' 또는 'How do you do?'를 사용하는데 의미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표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는 것은 상황에 따른 격식성의 차이 때문이다. Leech and Startvik(1994)는 'Good morning', 'How do you do?'를 격식(formal), 'Hi', 'Hello'를 비격식(informal)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 사용에 있어서 격식과 비격식이라는 문체의 차이로 각기 다른 형태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자의 경험으로 볼 때 지금까지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격식성에 관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언어형태나 의미만을 강조한 나머지 상황을 고려한 언어 사용의 측면이 등한시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도 영어교육과정에서도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 적합한 영어 사용을 교육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며(교육부 1997: 31) 이에 따라 최근 상황을 고려한 영어 사용의 중요성이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다.

Rivers(1968:69-70)는 상황에 맞는 언어 사용의 교육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Persons who are not native speakers of a language can easily cause offence and give wrong impressions by mixing

elements from several registers in speech and writing. Students in foreign-language classes should be made conscious of this problem of registers and taught to recognize differences so that they may not only choose the right register for a particular purpose but be able to keep a section of discourse within the one register.

Rivers의 말을 고려해 볼 때 실제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한 격식·비격식의 연구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게 상황에 맞는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그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격식과 비격식의 표현 방법들의 사용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또한 격식과 비격식의 표현의 학습 도입순서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Bowen(1963: 247)은 외국어 교육에서는 전문용어와 비전문용어의 구별이 분명치 않고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순서가 일관성 있게 지켜지지 않으며 친밀체(intimate), 약식체(casual), 상담체(consultative style)의 경향이 없이 바로 격식체(formal style)에 노출되는 예가 허다해 학습자가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언어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하여 외국어의 격식성에 대한 교육에 있어 자연스러운 언어습득과 유사하게 비격식체에서 격식체로 진행되어야 함을 논하고 있다. 따라서 영어 교과서의 편성에 있어 학년에 따른 격식과 비격식 표현들이 적절하게 포함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격식과 비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현행 7차 교육과정의 중·고등학교 교과서 본문에서 나타난 격식성의 사용분포를 파악하

여 상황에 적절한 언어 사용을 지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2. 연구의 구성과 제한점

본 연구의 구성에 있어서 2장에서는 격식성 구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Leech & Svartvik(1994)의 *A Communicative Grammar 2nd.*와 Martin Hewings(1999)의 *Advanced Grammar in Use*. 그리고 *Macmillan English Dictionary*(2002)를 참고하여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지닌 전반적인 특징들을 살펴본다. 3장에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범위, 연구방법을 밝히고 교과서의 본문을 어휘와 구문, 그리고 일상생활의 용어로 나누어 격식성의 사용분포를 파악해 본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격식성의 사용빈도를 바탕으로 격식성 지도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Quirk et al.(1985)가 언급한 바와 같이 격식과 비격식은 하나의 연속체로서 격식·비격식이라는 이분적 관점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격식성 판단을 비 원어민 화자로서는 판단하기 힘든 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들에 대한 격식성에 대한 판단은 상기한 참고 문헌을 근거하여 격식, 비격식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한계점이 있음을 밝힌다.

II. 이론적 배경

2.1 격식성의 구분

영어의 격식성(formality)에 관한 구분을 몇몇 언어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고, 비원어민 화자에게 그리고 본 논문의 목적에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표현양식을 따라서 교과서에 나타난 격식성을 분석할 것이다.

2.1.1 Joos(1961)의 격식성의 구분

언어를 표현하는 양식에 대한 최초의 고찰은 Joos(1961)의 *The Five Cloaks*에서 이루어 졌는데, 여기서는 형식성의 정도를 상황에 따라 친밀체(intimate), 약식체(casual), 상담체(consultative), 형식체(formal), 동결체(frozen)의 5가지 문체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친밀체(intimate)는 사회적인 장벽이 전혀 없는 가족간의 대화, 매우 가까운 친구와의 대화 등에서 볼 수 있는 표현양식이고, 약식체(casual)는 어휘 통제가 필요가 없으며 사회적 장벽도 대체로 낮은 경우에 나타나고 상담체(consultative)는 중간위치의 양식으로 사업 상담, 의사와 환자간의 대화 등이 주로 여기에 속하며 서로 낯선 두 성인이 처음 대화를 할 때 사용 되는 것이다. 상담체는 낯선 성인간의 처음통화를 시작할 때, 이야기의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 모르는 상대방에게 배경적 정보를 설명할 때, 또한 듣는 사람도 그 설명을 이해하며 또 그 이해를 나타내면서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 사용한다. Joos는 이 두

특성 때문에 상담체의 양식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의 통화의 기준이 되며, 또한 그 문법을 기술하기에 가장 쉬운 종류의 표현양식이라 말한다(조용남, 1993).

격식체(formal)는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 즉 대중연설, 강의 등, 청중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사용되는데 보통 연사와 청중간의 효과적인 교류를 할 수는 없지만 그 형태에 있어서는 동결체(frozen)만큼은 세련되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동결체는 가장 격식을 차려야하는 상황인 국제회의 회담 등 청중에 대한 연설과 같은 공식석상에서 사용되어지는 표현양식을 말한다.

이에 대해 Gleason(1965)도 Joos의 구분과 같이 아래와 같이 5가지 표현양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격식체에 대한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다.

1. 연설체(oratorical) : for formal speeches to large groups.
2. 신중체(deliberative) : primarily for less formal speeches to groups of an size
3. 상담체(consultative) : for conversation with someone other than a close friend
4. 약식체(casual) : for conversations with close friends.
5. 친밀체(intimate) : for use with members of the family and friends with whom one is especially close.(Liles 1972:309)

또한 Rivers and Temperley(1978)도 Joos와 동일한 구분으로 각 문체의 구체적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Intimate : Out!

Casual : Run along, now

Consultative : Would you mind leaving the room a moment, please?

Formal : The audience is requested to kindly leave the room for a few moments.

Frozen : The management respectfully request the conferees to vacate the auditorium between sessions in order to facilitate the operations of the custodial staff.

2.1.2 Quirk et al.(1985)의 격식성의 구분

Quirk et al.(1985: 25-26)은 문체(style)를 청자(독자)와 화제, 그리고 의사소통목적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부터 나오는 언어형태의 선택으로 보고 화자의 태도를 격식(formal)과 비격식(informal)간의 태도상의 척도로 인식하고 있다.

Varieties according to attitude is often called 'stylistic', but 'style' like 'resister' is a term which is used with several different meanings. We are here concerned with the choice of linguistic form that proceeds from our attitude to the hearer(or reader), to the topic, and to the purpose of our communication. We recognize a gradient in attitude between FORMAL (relatively stiff, cold, polite, impersonal) on the one hand and INFORMAL (relatively relaxed, warm, rude, friendly) on the other. The corresponding linguistic contrasts involve both grammar and vocabulary.

앞서 언급한 Joos의 다섯 가지 표현양식에서 동결체(frozen)와 형식체(formal)는 Quirk et al.의 격식체(formal)이며, 약식체(casual), 친밀체(intimate)는 비격식(informal)에 해당된다.

2.1.3 Leech & Svartvik(1994)의 격식성의 구분

Leech & Svartvik(1994:29)는 'formal'언어와 'informal'언어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Formal language is the type of language we use publicly for some serious purpose, for example in official reports, business, regulations, and academic writing.

Informal Language is the language of ordinary conversation, of personal letters, and of private interaction in general. Because it is generally more accessible to readers or listeners than formal English, it is used more and more nowadays in public communication of popular kind: for example, in advertisements, popular newspapers, and broadcas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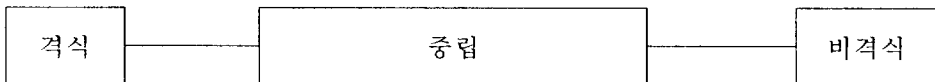
그리고 격식, 비격식에 포함되지 않는 무표(unmarked), 즉 표현양식 중에서 거의 모든 문체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 특성을 지닌 중립적 표현을 'common core'라고 부르고 격식-중립-비격식의 3가지로 문체를 구분하고 있다.

Luckily for the learner, many of the features of English are found in

all, or nearly all varieties. We say that general features of this kind belong to the 'common core' of the language.

여기서 공통핵(common core)은 중간적인 표현양식으로 앞서 살펴본 Joos, Gleason, Rivers and Temperley의 상담체(consultative)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의사소통기준이며, 문법을 기술하기에 가장 쉬운 종류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격식성의 체계는 각기 표현양식 구분은 다르지만 그 경계는 불분명하여 한쪽은 가장 격식적인 상황에서 다른 한쪽은 가장 비격식 상황으로 격식성의 연속체(continuum)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속체에서 격식 또는 비격식의 유표적 특징이 거의 없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공통핵이라고 하는 중립적 언어표현으로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만, 유표적인 특징의 상황에서는 화자는 격식과 비격식의 어느 한 방향으로 향하여 언어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2.2 격식성의 특징

Quirk et al.(1985)에서 문법과 어휘면에서 격식성에 대한 언어적 대조가

관련되어 있음을 논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도 어휘와 문법구조적인 면에서 격식과 비격식의 특성을 살펴보겠다.

2.2.1 어휘적 특징

어휘에서 나타나는 격식체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대체로 외래에서 들어온 불어, 라틴어, 그리스어 등으로 교육을 통해 배운 것들이 대표적이다. 즉 외래어의 경우 한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명확하고, 문학적이고 학구적인 느낌을 주어 격식체에서 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격식의 정도가 낮은 상황에 사용되는 비격식체는 격식체보다 의미가 넓고 막연하며 낮익은 기본 어휘들로서, 주로 앵글로-색슨 어휘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조용남 1993). 한 예로써 Leech와 Svartvik(1994: 9)는 offspring은 격식체, children은 중간체, kids는 비격식체에서 나타나는 어휘로 제시하고 있다(1994: 9)(이후로는 격식체는 볼드체로, 중간체는 밑줄로, 비격식체는 이탤릭체로 표시하도록 하겠다).

offspring(격식) - children(중간) - *kids*(비격식)

비격식체의 또 다른 특징은 한 단어로 나타나는 동사를 전치사 또는 부사를 수반하는 구동사 또는 전치사적 동사(phrasal or prepositional verbs)로 나타내는 것이다(Leech & Svartvik 1994: 339-340).

- (1) a. The government is continuing its struggle against inflation.
- b. The government is *keeping up* its struggle against inflation.

(1b)는 비격식체이다. continue라는 단일 어휘에 비하여 keep 과 up이라는 비교적 쉬운 어휘가 사용되어 구동사 keep up은 ‘계속하다’라는 의미 외에 ‘유지하다’, ‘뒤지지 않다’ 등의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이 비교적 쉬운 어휘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구동사가 비격식을 나타내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호칭에 있어서 비격식적인 표현에서는 이름을 간략하게 부르지만 격식적인 표현에서는 경칭(titles)과 함께 성(family name)과 이름(given name)을 다 부르거나 성을 부른다. 즉, 이름이 John Dawber의 경우 비격식체에서는 John이라 부르나 격식체에서는 Mr. John Dawber 또는 Mr. Dawber라고 한다. 어휘의 길이를 줄여 refrigerator를 *fridge*, mother를 mom, 또는 mommy, substitute를 sub로 나타내는 것과 같은 단축으로 비격식에서 사용한다

어휘 선택 시 대체로 의미가 단순하지만 사용빈도가 낮은 대신 말해서 난이도가 높은 어휘들은 격식을 갖추어야하는 상황에서 주로 나타나고, 비격식에서는 대체로 형태는 간단하지만 의미는 복잡한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어휘로서 축약, 약칭, 구동사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2.2 구조적 특징

문법 구조에 있어서 역시 격식체와 비격식체와의 차이를 생략, 구문, 구어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격식체에서는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하여 청자와 화자 사이에 공유 정보를 지니고 있을 때는 생략이 일어나며, 격식체는 도치, 분사구문, 조동사 등에서 볼 수 있다.

Leech와 Svartvik(1994)는 다음의 예문을 들어 격식체가 비격식체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2) a. **There are many friends to whom** one would hesitate to entrust one's own children.
- b. *There's lots of friends who* you would hesitate to entrust your own children *to*.

(2a)와 (2b)를 구조면에서 살펴보면, (2a)는 종래의 규범문법 틀을 전혀 벗어나지 않았지만 (2b)에서는 논리적 주어 *lots of friends*가 복수인데도 문법적 주어 *there*가 갖는 동사는 단수로 나타났고, 또한 전치사가 관계대명사와 분리되어 문미에 위치하며,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아주 격식체인 *whom*이 아닌 *who*가 사용되어 있다. 이러한 것이 비격식체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라 본다.

2.2.2.1 생략

전춘배(1999)는 주어, 조동사 등이 생략되어 구어체에서 무주어문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주로 평서문에서 주어 *I*, 허사 *it*과 *there*, 주어와 *be*동사가, 의문문에서는 조동사와 *do*, *have*, *be*동사가, 명령문에서는 주어, 동사 등이 생략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주로 비격식체, 구어체 영어에서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또한 *that*이 이끄는 절은 주어, 주격보어(subject complement), 형용사보어(complement of an adjective)등의 역할을 하는데 비격식체의 문장에서는 *that*이 이끄는 절이 목적절, 보어(complement), 후치된 주어절인 경우 접속사 *that*이 생략될 수 있다.

- (3) a. A: I like a light kitchen, but I don't want anything too bright

B: Yeah, () know what you mean.

b. () You all right?

c. () Faster!

(4) a. I knew () I was wrong.

b. I'm sure () she'll manage somehow.

c. It's a pity () you have to leave so soon.

(3)은 각각 평서문과 의문문, 감탄문에서 주어, 동사, 조동사 등이 생략되었으
며, (4)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된 경우이다.

2.2.2.2 조동사

의지를 포함하지 않는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과 shall에서
will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1인칭 'I', 'we'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
shall은 더 격식체이다(Leech & Svartvik 1994: 76, M. Hewings 1999: 22).

(5) We **shall** hear the results of the election within a week.

또한 의무(obligation)의 의미로 shall은 대개 공식적 규범이나 격식적인
문서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Leech & Svartvik 1994: 165).

(6) The Society's nominating committee **shall** nominate one person
for the office of President.

과거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건을 나타낼 때는 would보다 used to가 비
격식체에서는 일반적이다(M. Hewings, 1999: 38).

- (7) a. We **would** lend him money when he was unemployed.
 b. We ***used to*** visit his parents every other weekend.

허가를 나타내는 경우 may가 can보다 더 격식적인 표현이다(M. Hewings 1999: 50).

- (8) a. Children **may** enter only when accompanied by an adult.
 b. You can watch television after you have finished your homework.

(8a)는 극장에 부착되어 있는 공지문으로 may를 사용함으로써 격식을 갖추고 있으며 (8b)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일상적인 말로서 덜 격식적인 상황에서 조동사 can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조동사 will과 be going to 역시 의미의 차이 없이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격식체에서는 will이 선호된다(M. Hewings 1999: 22).

- (9) a. John **will** meet us in the restaurant at 8 o'clock.
 b. *Are you going to* come back this evening?

(9a)에서는 공적인 약속으로써 주어인 John과의 약속이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9b)에서는 개인간의 사적인 대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발화이다.

2.2.2.3 기타 구문

분사구문이나 도치구문,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구문에서 격식과 비격식의 표현양식을 살펴보자

- (10) a. **Being a farmer**, he has to get up early.
b. As he is a farmer, he has to get up early.

Leech & Svartvik(1994: 183)는 분사구문을 격식체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부사절은 중간체로 널리 사용되는 표현이다.

- (11) a.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the door** be left unlocked.
b. The door should not be left unlocked under any circumstances.

Leech & Svartvik(1994: 203)는 도치구문을 격식체로 구분하며 이에 대항하는 비도치구문은 중간체로 구분하고 있다. (11a)는 부정어의 의미를 갖는 부사구가 문두에 위치하면서 주어와 조동사 should의 도치가 일어난 예이며 (11b)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은 예이다. 도치가 사용된 (11a)는 (11b)와 비교할 때 더 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된다.

2.2.2.4 구어체와 문어체

오늘날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에서 일상의 구어체가 문어체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비격식, 구어체가 문법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용남(1993)은 일반적으로 규범문법이라 함은 전통적, 보수적인, 가끔씩은 낡은 형태의 구조를 지칭하지만, 이런 형태의 표현은 당연히 점잖게 느껴져 격식을 갖추어야하는 상황에서 사용되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격식체의 언어 형태가 규범문법에 보다 더 근간을 두는 반면에 비격식

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구어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영어에서 문법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비격식체, 구어체라 생각된다. 여기에는 주어와 동사의 수·성 불일치, 인칭대명사 격의 불일치, 의문사와 관계대명사에서 전치사의 후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12) a. Ann can speak French better than I.
b. Ann can speak French better than *me*.

(12)의 문장에서는 비교의 대상이 주어 Ann과 화자와의 비교이므로 주격인 I가 사용된 (12a)가 규범문법에 근거한 문장으로 격식체, 목적격 *me*가 사용된 (12b)는 비격식체로 사용된 것이다.

- (13) a. There are only four bottles left.
b. *There's* better things to do than listen to gossip.

(13)은 주어와 동사사이의 수 일치에 관한 것으로 논리상의 주어가 복수인 경우 (13a)처럼 복수동사 *are*가 사용되어야 하나 비격식체에서는 (13b)와 같이 단수동사인 *is*가 사용되었다(Leech & Svrtvik 1994: 286, M. Hewings 1999: 230). 이처럼 비격식체에서는 규범문법과는 다른 형태의 변이형을 볼 수 있는 것이다.

2.2.3 일상생활의 기본표현

오랫동안 사람들의 언어생활 중 빈번하게 사용되어 어느 일정한 장면에서 고정되어 사용되어지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러한 표현 중에서 대화의 상

대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 상황에 맞는 표현들이 선택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14) A: **Good morning.**

B: **Good morning, Mr. Brown.**

(15) A: *Hi, Anna.* How are you?

B: *Fine, thanks,* Ben. And you?

A: *Fine, thanks.*

(14)는 학교나 직장에서 공적인 대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격식체이고 (15)는 친구 또는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비격식체이다.

III. 자료의 분석 및 논의

3.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영어교과서 본문 문장에서 연구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data-based analysis 방법을 취한다. 현재 부산 시내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어 사용되는 영어교과서는 금성출판사, (주)지학사의 순서이며, 중학교 교과서는 천재교육, 두산 동아(장영희 외), (주)지학사의 순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교과서의 단계별 일관성을 고려하여 사용 빈도가 높고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모두 제작하고 있는 (주)지학사의 중 1, 2, 3학년 교과서와 고 1, 2, 3학년 교과서 6종을 선정하여 자료의 출처로 삼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과서는 크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리고 각 기능의 통합적 학습과 보충·심화활동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기능에 있어 세부적 구성이 동일하지 않고 본문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각 단원의 본문의 내용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으며, 자료 인용 시 편의를 위해 괄호 내에 간략히 표시하기로 한다.

- 이성호 외. 2001. *MIDDLE SCHOOL ENGLISH 1*, (주)지학사 (M1)
- 이성호 외. 2001. *MIDDLE SCHOOL ENGLISH 2*, (주)지학사 (M2)
- 이성호 외. 2001. *MIDDLE SCHOOL ENGLISH 3*, (주)지학사 (M3)
- 이맹성 외. 2002. *HIGH SCHOOL ENGLISH*, (주)지학사 (H1)

이맹성 외. 2002. *HIGH SCHOOL ENGLISH I*, (주)지학사 (H2)

이맹성 외. 2002. *HIGH SCHOOL ENGLISH II*, (주)지학사 (H3)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제작된 (주)지학사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본문에 제시된 문장을 어휘와 구조, 일상생활의 기본표현의 3가지로 나누어 Geoffrey Leech and Jan Svartvik(1994)의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와 Martin Hewings(1999)의 *Advanced Grammar in Use*, 그리고 *Macmillan English Dictionary*(2002)에 근거하여 격식과 비격식으로 나누었다. 격식과 대응되는 비격식, 비격식과 대응되는 격식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중간체와 격식 또는 비격식체로 분류하였다.

또한 교과서 본문에 제시되고 있는 어휘와 문장구조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기능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였다.

3.2 어휘

교과서에 나타난 어휘를 명사, 동사, 전치사, 부사, 양화사, 접속사, 구동사, 축약 그리고 호칭으로 나누어 빈도를 파악해 보았다. 어휘의 격식성에 대한 판단은 비원어인 화자로서 결정하기 어려워 *Macmillan English Dictionary*에 제시된 구분을 참고로 하였다.

3.2.1 명사, 동사, 전치사, 부사

3.2.1.1 명사

(16)과 같이 명사의 격식성에 의해 격식과 비격식으로 구분되어 지는 경우

와 (17b)와 같이 비격식에서 긴 단어를 줄여서 짧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16) Dolphins are helping children, and horse are teaching *kids* to walk.(H1/152)

(17) a. On Friday, everyone crowded into the **gymnasium**.(H2/60)

b. We have a *gym* and a music room, too.(M1/52)

명사의 격식과 비격식 사용빈도는 <표1>과 같이 나타났다.

<표1> 명사의 격식과 비격식 사용빈도

학년	격식		비격식	
	어휘	빈도	어휘	빈도
중1	-	-	mom	5
	-	-	bike	5
	gymnasium	-	gym	1
중2	-	-	pal	3
중3	-	-	-	-
고1	-	-	kid	8
	-	-	couch potato	1
	eyeglasses(AE)	2	-	-
	accordance	1	-	-
고2	-	-	rib-tickler	1
	-	-	kid	3
	-	-	giggle(BE)	1
	-	-	couple	1
	gymnasium	1	-	-
	sentiment	1	-	-
	male	2	-	-
	-	-	sub	1

학년	격식		비격식	
	어휘	빈도	어휘	빈도
고3	-	-	mama	7
	-	-	bang	1
	creme de la crem	1	-	-
	prospect	1	-	-
고3	worth	1	-	-
	modification	1	-	-
	conclusion	1	-	-
계(%)		12(24)		38(76)

<표1>을 보면 비격식 명사의 사용빈도가 3배로 높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특히 kid 11회, mama 7회, mom과 bike는 각각 5회씩 사용되어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이와 같은 비격식체의 어휘들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중간체로 전이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1.2 동사

동사 역시 (18), (19)처럼 어휘가 가진 격식성에 의해 격식과 비격식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18) Books lives. Books endure and **prevail**.(H3/15)

(19) I didn't know it, but the person I was *bad-mouthing* was standing right behind me and heard everything I said.(H2/216)

동사의 격식과 비격식 사용빈도는 <표2>와 같이 나타났다.

<표2> 동사의 격식과 비격식 사용빈도

학년	격식		비격식	
	어휘	빈도	어휘	빈도
중1	-	-	-	-
중2	-	-	root for	1
	-	-	hang out	1
	receive	4	-	-
	understand	1	-	-
	depart	1	-	-
중3	dispatch	1	-	-
	receive	1	-	-
	strike	2	-	-
고1	-	-	pump up	1
	receive	2	-	-
	suppose	1	-	-
	accompany	1	-	-
고2	-	-	tickle	1
	-	-	crack up	2
	-	-	bad mouth	1
	-	-	wrap up	1
	exert	1	-	-
	distinguish	1	-	-
	interrupt	1	-	-
	secure	1	-	-
	descend	2	-	-
	seek	2	-	-
	grant	1	-	-
	initiate	1	-	-
	illuminate	1	-	-
	observe	1	-	-
	advise	1	-	-
	cease	1	-	-

학년	격식		비격식	
	어휘	빈도	어휘	빈도
고3	-	-	toss out	1
	-	-	dump	1
	-	-	damn	1
	prevail	1	-	-
	encounter	1	-	-
	receive	1	-	-
	await	1	-	-
	reprove	1	-	-
	regret	1	-	-
	modify	2	-	-
	attain	1	-	-
	quantify	1	-	-
계(%)		38(78)		11(22)

<표2>에 의하면 명사와는 달리 동사에서는 격식체가 약 4배에 이를 정도이다.

(20a)와 같이 소유의 have는 have got과 유사한 의미로 have는 격식체, (20b)와 같이 비격식에서는 have got을 사용할 수 있다(M. Hewings 1999: 54, Leech & Svartvik 1994: 242).

- (20) a. We know that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to achieve our ultimate goal.(H1/177)
b. I said, "But I've *got* a gap!"(H1/107)
- (21) a. Do you want to have a drink?
b. I find having no car very inconvenient.
c. She won't have that old bike for much longer.
d. I will have time to do the work tomorrow.

e. 'Have we got any biscuits left?' 'Yes, we have.'

여기서 (21a)에서 to 부정사 뒤, (21b)에서와 같이 ~ing형태, (21c), (21d)의 조동사의 뒤 그리고 (21e)와 같이 짧은 대답에 사용되는 경우 등과 같이 have만이 사용될 수 있는 경우(M. Hewings 1999: 54)를 제외한 have와 have got이 같이 사용될 수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였다.

<표3> have와 have got의 사용에 따른 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have (%)	20	11	16	12 (75)	8 (89)	12	79 (94)
have got (%)	0	0	0	4 (25)	1 (11)	0	5 (6)
have(%) /have got(%)	47 / 0			32(86) / 5(14)			

<표3>과 같이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have got이 도입되지 않았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3.2.1.3 전치사

about과 on은 의사소통이나 논의의 주제에 관해 ‘~에 관하여/대하여’의 의미를 갖는 전치사이다.

(22) a. At our last meeting, we decided **on** two finalists.(H2/126)

b. To celebrate the 10th Korean Day in our town, we asked our readers to write us *about* Korea.(M2/196)

(23) There's a big reward for giving information *about* Bomba.

(H1/41)

(24) She gave me a lecture *on/about* European history.

(22a)와 (22b)는 동사 뒤에서 사용된 *on*과 *about*의 예로 여기서 (22a)가 더 격식체라고 할 수 있다. (23), (24)는 명사 뒤에 *on*과 *about*이 사용된 예이다.

advice, agreement, book, article, paper, consultation, decision, discussion, idea, information, lecture, opinion, question 등의 명사 다음에, 동사 advise, argue, decide, disagree, lecture, speak, speculate, talk, write 등 다음에 *on*은 의도적이고 격식적 행위의 글쓰기, 말하기에 한정되어 주제나 화제에 더욱 확실할 초점을 부여하는데 비해, *about*은 think about, know about, be sorry about 등과 같이 정신상태에 비격식적으로 사용된다(M. Hewings 1999: 220). 또한 사람 또는 사물에게 발생하는 일 또는 특정 사건에 대하여 말하는 경우 learn과 know 뒤에서 사용되는 *about*과 *of*에 있어서는 *of*의 사용이 격식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M. Hewings 1999: 222).

(25) Tell me,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death?(H3/235)

(25)는 learn, know와 *about*이 사용된 예인데, 격식의 전치사 *of*가 사용된 예는 찾을 수 없었으며 전치사 *about*이 사용된 경우도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 2회에 불과하였다.

이외에도 전치사의 어휘의 격식성에 따라 격식과 비격식에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전치사의 격식과 비격식에 따른 사용빈도는 <표4>와 같이 나타났다.

<표4> 전치사의 격식과 비격식에 따른 사용빈도

학년	격식		비격식	
	어휘	빈도	어휘	빈도
중1	on	-	about	2
중2	on	-	about	3
중3	within	2	-	-
	on	1	about	-
고1	on	-	about	5
고2	on	2	about	4
	upon	3	-	-
	as to	1	-	-
	concerning	1	-	-
	within	1	-	-
고3	on	-	about	6
	within	2	-	-
계(%)		13(39)		20(61)

<표4>에 의하면 전치사의 경우 다양한 격식의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으나, 빈도에 있어 비격식의 전치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격식의 about의 빈번한 사용으로 인한 것이다. ‘~에 관하여/대하여’라는 의미를 가지는 on과 about을 비교해 볼 때 비격식의 ‘about’이 거의 모든 경우에 ‘about’이 사용되는 반면에 격식의 on이 아주 낮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on이 주로 공식 연설, 논문과 같은 대학 작문(academic writing)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인 듯 하다.

3.2.1.4 부사

어떤 부사는 동일한 의미로서 두 가지 다른 유형의 부사가 존재한다. -ly로 끝나는 형태와 -ly가 없는 형용사와 동일 형태가 있는데 격식체에서는 -ly형태의 부사가, 비격식체에서는 형용사와 동일한 형태가 사용된다 (Leech & Svartvik 1994:224, M. Hewings 1999: 168).

- (26) a. The princess laughed long and **loudly**.(M3/179)
 b. Action speak *louder* than words.(M3/136)
 c. Now she could see even the small numbers and letters on the bottom line, and she read them out *loud*.(M1/62)

교과서에서 제시된 형용사형태와 부사형태의 사용빈도는 <표5>와 같다.

<표5> 부사의 형태에 따른 격식과 비격식의 사용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ly 형태 (%)	1	0	4	4	1	5	15 (83)
형용사 형태 (%)	0	0	1	1	1	0	3 (17)
-ly 형태% /형용사 형태(%)	5(83)/1(17)			10(83)/2(17)			

이러한 형태의 비교는 빈도수가 많지 않았지만, -ly 형의 부사형으로 사용된 경우가 중·고 모두 전체의 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형용사 형태의 부사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다른 품사와 마찬가지로 어휘가 가진 격식성에 의해 격식체와 비격식체에서 사용되는 부사로 구분될 수 있다.

<표6> 부사의 격식과 비격식에 따른 사용빈도

학년	격식		비격식	
	어휘	빈도	어휘	빈도
중1	-	-	-	-
중2	-	-	-	-
중3	otherwise	1	-	-
	ill	1	-	-
고1	-	-	sure	1
	likewise	1	-	-
고2	-	-	pretty	2
	hereby	1	-	-
	wholly	1	-	-
고3	-	-	damned	1
	but	1	-	-
	indeed	1	-	-
	nonetheless	1	-	-
계(%)		8(67)		4(33)

위의 표에서 but은 only의 의미로서 부사로 ‘We can **but** guess at the extent of the problem.’과 같은 문장에서 사용된 경우이다.

지금까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격식성에 따른 사용빈도를 살펴보았다. 명사는 비격식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나머지 품사에서는 격식의 어휘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비격식의 어휘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고학년인 경우 어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 어느 하나의 의미가 비격식으로 사용된 것 같으며, 이는 그러한 비격식의 의미가 학습자에게 오히려 난해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3.2.2 양화사

양화사(Quantifiers)에서도 격식과 비격식 어휘 사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평서문에서 수·양을 나타낼 때 격식체에서는 many (of)나 much (of)를 사용하지만, 비격식체에서는 a lot of나 lots of 또는 plenty of를 사용한다. 또한 a majority of, a great of, a large amount of, a large number of 등도 격식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 (27) a. Scientists say that **many** sports players have greatly improved their performance with these techniques.(M3/219)
- b. We laugh for *lots of* different reasons.(H2/15)
- c. It made me feel better about my game when I realized that even the world's best players make *plenty of* mistakes.
- (H2/215)

양화사 many/much, a lot of의 격식, 비격식 사용 빈도를 파악해 본 결과는 <표7>과 같이 나타났다.

<표7> many, much와 a lot of의 사용 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many, much (%)	9 (69)	11 (58)	19 (79)	11 (73)	17 (94)	24 (89)	91 (78)
a lot of, lots of (%)	4 (31)	8 (42)	5 (21)	4 (27)	1 (6)	3 (11)	25 (22)
many, much(%) /a lot of, lots of(%)	39(70)/17(30)			52(87)/8(13)			

전체적으로 many, much의 사용이 a lot of의 사용빈도 보다 거의 4배로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많은 영어 사용국가에서 발행한 영어교재나 일상생활에서 비격식체인 a lot of가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비격식체를 비교해 보면 전체 25개의 증거자료(token) 중에서 17개(68%)로써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비격식체가 아주 높게 나타났다.

a little과 a bit of의 경우에도 a bit of는 비격식에서 사용된다(M. Hewing 1999: 136).

- (28) a. From a certain point of view life can be described as a series of mistakes, one right after another, with a little space in between.(H2/214)
- b. He even had the nerve to wrap it in **a bit of** tissue paper and give it to me to take home!(H1/107)

<표8> a little과 a bit of의 사용 빈도

	교1	교2	교3	계
a little (%)	2	2	1	5 (63)
a bit of (%)	2	1	0	3 (37)

<표8>에 의하면 a little과 a bit of의 경우는 중학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등학교에서도 a little와 a bit of의 사용빈도는 매우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용 빈도에서도 a little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few, little은 격식에서, 비격식에서는 not many/much, only a few/ little을 사용한다(M. Hewing 1999: 136).

- (29) a. **Few** people recognized the true worth of Cezanne's work until the last years of his life.(H3/173)
- b. But in Yucatan, Mexico, *not many* people answer, "I don't know."(M3/78)

교과서에서 사용된 빈도는 <표9>와 같이 나타났다.

<표9> few, little과 not many, not much의 사용 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few, little(%)	0	0	3	0	1	4	8 (53)
not many, not much(%)	0	0	2	0	3	2	7 (47)
few, little(%) /not many ,not much(%)	3(60)/2(40)			5(50)/5(50)			

<표9>에서 부정 양화사의 출현은 중학교 3학년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교과서 전체를 통해 7~8개로 그다지 많은 예를 찾을 수는 없었으며 대체로 격식과 비격식 사용빈도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양화사 빈도조사에서도 many, much, a lot of 등과 같이 수나 양이 '많음'을

나타내는 표현의 빈도는 많이 사용되었으나 a little, a bit of, few, little, not many, not much 등과 같이 수나 양이 많지 않음을 나타내거나 부정적인 의미의 양화사 사용빈도는 매우 적게 나타났다.

3.2.3 접속사

접속사도 비교적 어려운 어휘는 격식에서 사용되는데,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에서 일반적으로 because가 사용되어지나, since, for, in that, inasmuch as는 격식적의 상황에서 사용되어지고, seeing (that)as는 비격식의 상황에서 사용되어진다(M. Hewings 1999: 192).

- (30) a. But no one asked for her hand in marriage **for** they were greatly afraid of the king.(M3/176)
- b. **Since** the pampa is one of the driest deserts on earth, it makes sense that the Nazcas would worship gods that brought them water.(H2/84)
- c. He just had to apologise, *seeing (that)as* he knew he'd made a mistake(M. Hewings 1999: 192).

교과서에서 사용된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들의 격식과 비격식에 의한 사용 빈도는 <표10>과 같다.

<표10> since, for, in that, inasmuch as / seeing (that)as

접속사의 격식과 비격식 사용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격식 (%)	0	0	1	2	5	4	12
비격식 (%)	0	0	0	0	0	0	0
격식(%) /비격식(%)	1 / 0			11 / 0			

<표10>에서와 같이 원인, 이유접속사는 중학교 3학년에서 처음으로 격식체의 접속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고등학교의 교과서에서 점차 많이 나타나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격식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비격식인 seeing that/as는 교과서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Leech & Svartvik(1994: 107)는 ‘because of that’ 또는 ‘for that reason’의 의미를 가진 결과를 추론하는 therefore, thus, accordingly, hence, consequently 등과 같은 접속사는 격식을 갖추어야하는 경우에 사용하나 동일한 의미의 so는 비격식의 상황에 사용되어진다고 구분하고 있다.

- (31) a. She knew that books travel two ways and **thus** they also take us on journeys with them.(H3/18)
- b. I wanted to help. So I watered all the plants.(M2/59)

이들 접속사들의 사용 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11>과 같이 나타났다.

<표11> therefore, thus, accordingly, hence, consequently / so

접속사의 격식 · 비격식 사용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격식 (%)	0	0	2	0	0	2	4 (13)
비격식 (%)	1	9	2	5	5	4	26 (87)
격식(%) /비격식(%)	2(14)/12(86)			2(12)/14(88)			

<표11>에서 알 수 있듯이 결과를 추론하는 접속사의 빈도에서는 비격식 so가 훨씬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 격식인 경우에도 therefore가 중학교 3학년에서 2회, 고등학교 3학년에서 thus가 1회, therefore가 1회씩 제시되었다.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어휘 accordingly, hence, consequently는 제시되지 않았다.

중학교 1학년부터 비격식 so가 출현되어 계속 사용되고 있지만 격식체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서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결과를 추론하는 내용의 접속사로서 so는 이미 공통핵으로 자리를 굳힌 것이라 생각된다.

3.2.4 대명사

주어의 수, 격에 따라 동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비격식의 경우에 종종 있다. there's 복수명사, none(neither, either) of +복수명사 다음의 단수동사, 그리고 -body/-one를 대명사 they로 나타내는 것 등이 있다. 그리고 It's I 대신 It's me, 비교급 than 뒤에 목적격의 사용 등에서 볼 수 있다.

(32) a. It's *them*!(H1/64)

b. *Me* sitting in Papa Joe's chair!(H3/62)

또한 전통적으로 단수인 명사의 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남성인 'he'로 나타내거나 성, 수의 일치를 위해 he or she로 나타내는 것은 격식체에서 볼 수 있다. 최근에 성의 차별을 피하기 위해 단수 명사를 복수 they(their, them)으로 나타내는 것은 비격식에 해당된다(Leech & Svartvik 1994: 263).

(33) a. Instead, a Greek will often say, "Follow me." Then **he**'ll lead you through the streets of the city to the postoffice.(M3/78)

b. Do you have a friend with a cold? **His or her** cold germs can get into your body through your nose and mouth

(M1/217)

(34) Every child will carry a micro-chip, and it will help the parents to find *them*.(H1/21)

(34)에서 단수 명사 every child는 복수 대명사 them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수의 불일치 현상은 비격식체에서 볼 수 있다. 성, 수의 일치에 의한 격식과 비격식의 사용빈도는 <표12>와 같이 나타났다.

<표12> 대명사의 격식과 비격식 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격식 (%)	2	0	2	3	5	5	17 (85)
비격식 (%)	0	0	0	2	0	1	3 (15)
격식(%) /비격식(%)	4 / 0			13(81) / 3(19)			

교과서에서는 비격식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들은 중학교에서는 사용되지 않았고, 고등학교에서만 3회로 아주 적었으며, 격식에 해당하는 17회 중 he가 12회, he or she가 5회로 격식의 경우 'he'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나왔다. 이러한 현상은 규범 또는 전통문법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며, 구어체, 비격식체가 교과서에 매우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5 축약

do, have, be와 같은 동사나 조동사가 주어 또는 부정의 not과 함께 사용될 때, 비격식체에서는 주어와 조동사 또는 be동사가 축약되어 사용된다 (Leech & Svartvik 1994: 16, 240, 306).

(35) a. She is a good singer.(M1/53)

b. Why? She's my mom.(M1/71)

(36) a. Then you will find yourself getting healthier day by day.

(M2/239)

b. In the future, you'll be able to phone home with video

wristwatches.(H1/19)

(37) a. When someone told me that five years ago, I did not believe it. Now I do.(H1/131)

b. We *don't* use them for games.(M1/53)

(38) a. You had better not follow all the dictions you receive.
(M3/78)

b. You'd better get up, or I'll call the police.(H2/147)

(35b)에서는 주어와 be동사가, (36b)에서는 주어와 조동사가, (37b)에서는 조동사와 부정어 not이, 그리고 (38b)에서는 주어와 had better의 had가 축약되었다. 그러나 (35)~(38)의 a는 축약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이다. 따라서 이 경우 (35)~(38)의 b는 비격식체이다.

(39) a. Why you *doin'* all of this for me, Papa Joe? (H3/61)

b. “'Cause you're like a son to me, that's why.”(H3/61)

(39a), (39b)는 분석자료 중 고등학교 3학년 본문에 사용된 비격식의 보기 드문 예문이다. (39a)의 doing은 어미음 탈락(apocope), (39b)의 'cause는 어두음 탈락(aphaeresis)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교과서에 나타난 전체 문장의 수에 대한 축약과 비축약의 빈도는 <표 13>과 같이 나타났다.

<표13> 축약과 비축약의 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축약 (%)	34 (56)	53 (54)	18 (29)	69 (68)	73 (56)	91 (58)	338 (55)
비축약 (%)	27 (44)	45 (46)	44 (71)	33 (32)	58 (44)	65 (42)	272 (45)
축약(%) /비축약(%)	105(48)/116(52)			233(60)/156(40)			

<표13>을 보면 전체적으로 축약과 비축약의 빈도가 큰 차이 없이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비교해 볼 때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축약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에서는 비축약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축약의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각 단원의 성격, 장르와 관련되어 있는 듯 하다.

3.2.6 구동사

대체로 격식 또는 중립적인 표현에서는 단일 어휘로 된 동사를 사용하나, 비격식에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쉬운 어휘를 사용하여 부사나 전치사를 수반하는 동사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Leech & Svartvik 1994: 31).

- (40) a. His or her cold germs can *get into* your body through your nose and mouth.(M1/217)

- b. You must STOP, LOOK, and ENTER the roadway slowly.

(M1/198)

격식과 비격식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과서에 있는 구동사를 찾고 그 구동사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일 어휘가 교과서에서 사용된 경우 구동사와 단일 어휘의 빈도를 비교해 본 결과 <표14>와 같이 나타났다.

<표14> 단일 동사와 구동사의 사용 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단일동사	1	3	2	20	34	25	85
(%)	(50)	(60)	(33)	(59)	(60)	(56)	(57)
구동사	1	2	4	14	23	20	64
(%)	(50)	(40)	(67)	(41)	(40)	(44)	(43)
단일동사(%) /구동사(%)	6(46)/7(54)			79(58)/57(42)			

<표14>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의 단일동사와 구동사의 사용빈도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큰 차이는 없지만, 중학교에서는 구동사가 고등학교에서는 단일 동사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3.2.7 호칭

격식을 갖추어야하는 경우는 경칭과 성을 부르거나 이름과 성을 다 부른다. 그러나 비격식의 상황에서는 이름을 사용하거나 이름을 간략하게 불러 친근함을 나타내는 애칭을 사용한다.

- (41) a. Our homeroom teacher is **Ms. Kim Su-ji**.(M1/53)
 b. Okay, *Shelly*.(M1/106)

약칭과 호칭에 있어서 교과서에서 사용된 격식과 비격식의 빈도는 <표15>와 같이 나타났다.

<표15> 호칭에서 격식과 비격식의 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격식 (%)	2 (7)	6 (13)	2 (67)	10 (11)	6 (15)	8 (6)	34 (11)
비격식 (%)	19 (93)	40 (87)	1 (33)	79 (89)	30 (85)	116 (94)	285 (89)
격식(%) /비격식(%)	10(14)/60(86)			24(10)/225(90)			

<표15>에서 중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 모든 학년에서 비격식인 표현이 약 90%로서 절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호칭에 있어서 이름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대화체로 이루어진 본문에서 두드러져 중·고등학교의 교과서가 대부분 약칭과 애칭을 사용하는 일상생활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3학년 11과에서는 이전의 교과서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fella*, *buddy*와 같이 아주 비격식적인 호칭들도 사용되고 있어 교과서가 언어 사용을 그대로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42) a. Hey, *fella* - what on earth are you doing at this ungodly hour?

(H3/235)

b. Okay, *buddy*.... Tell me,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death?

(H3/235)

3.3 구조

표현양식에 따른 차이는 어휘뿐만 아니라 구문에서도 나타난다. 구문상에서 나타나는 비격식의 커다란 특징은 생략, 구문의 격식성, 구어체에 의한 문법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경제성원리에 의한 의사소통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본다.

3.3.1 생략

전춘배(1999)와 홍병호(1992)는 생략을 통한 짧은 표현을 비격식체의 주된 구문적 특징으로 들었는데, 이는 화자와 청자사이의 친밀감(rapport)과 공유지식이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3.3.1.1 무주어문

문장의 일부인 주어, 조동사 등이 생략되어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길이가 짧아진 무주어문은 비격식 상황에서 빈번하다.

- (43) a. Now, () Kitty Brown in New Zealand.(M1/106)
b. () No wonder doctors sometimes encourage people to take
pets to the hospital.(H2/155)
c. () Only one jump left!(H3/214)
- (44) a. "There ()! () You see?"(H3/83)
b. () No cars in the future?(H1/20)

(43)는 모두 주어와 동사가 생략된 경우이며, (44a)는 there 구문에서 주어와 동사가, 뒤의 의문문에서 조동사(can) 또는 do가 생략된 경우이다. (44b)의 경우 존재 there 구문이 의문문으로 되면서 there과 be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동사 had better 역시 생략되어 better로 제시되기도 하며, 일기체의 내용에서는 주어가 'I'인 경우 생략이 일어난다.

(45) () Better start wearing your long pants all the time.(H3/63)

(46) () Wake up at 4 a.m. with a toothache.(H1/106)

(45)에서는 주어와 조동사 had better의 had가 생략되었으며, (46)는 일기의 한 문장으로 주어 'I'가 생략되었다.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어, 동사가 생략된 문장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16>과 같다. 학년에 따라 본문에 사용된 문장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각 학년 교과서 본문의 전체 문장의 수를 가지고 주어, 동사가 생략된 문장의 빈도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표16> 무주어문의 사용 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생략 (%)	6 (2)	4 (1)	6 (2)	17 (3)	17 (2)	28 (3)	78 (2)
전체문장 수	248	484	382	648	700	763	3,225
생략(%)	16(1)			62(3)			

<표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주어, 동사의 생략은 상위 학년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문장에 비해서 생략의 빈도는 2%로 극히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보다 완전한 문장의 구조를 학생들이 습득하도록 한 것이라 생각된다.

3.3.1.2 접속사의 생략

접속사 **that**이 이끄는 종속절이 동사의 목적절인 경우와 보어 (complement)절인 경우 격식에서는 생략되지 않으나 비격식에서 생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47) a. I felt **that** the world was mine.(M2/77)

b. I think () I'm happy without sight.(M2/119)

(48) a. Make sure **that** you turn off the lights when you go out of the room.(M2/237)

b. Make sure () you understand the graphs and tables.(M3/38)

또한 아래 (49a)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so~that의 구조에서도 비격식의 경우 (49b)와 같이 **that**이 생략되어 나타난다.

(49) a. They train their minds and bodies **so** well **that** they often come to know exactly who their enemies are. (M3/57)

b. Technology is changing quickly, Louis was so surprised () he couldn't speak. (H3/60)

교과서에 제시된 접속사 that의 생략 빈도를 살펴 본 결과 <표17>과 같이 나타났다.

<표17> 접속사 that의 생략 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생략 (%)	0	7 (22)	6 (27)	21 (47)	14 (25)	22 (36)	70 (32)
비생략 (%)	0	25 (78)	16 (73)	24 (53)	42 (75)	39 (64)	146 (68)
생략(%) /비생략(%)	13(24)/41(76)			57(35)/105(65)			

that의 생략은 모든 교과서에서 비생략의 절반 정도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에서 생략의 빈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3.3.1에서 비격식의 특징으로 교과서에 나타난 생략의 빈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주어, 동사의 생략의 빈도는 대체로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하는데 이는 저학년에서는 주로 주어와 be동사와 같이 제한적으로 생략이 나타나지만 고학년으로 가면서 일기체에서 주어 'I'의 생략, 허사 'it'과 같이 보다 더 다양한 경우에서 생략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접속사 that은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높게 나타나 비격식체인 생략을 고등학교에서 더욱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3.2 조동사

3.3.2.1 will과 shall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과 shall 중에서 will의 사용이 일반적이나 1인칭 주어 I, we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shall은 격식적인 표현에서 사용한다.

(50) a. I **shall** never forget that night.(H1/128)

b. Perhaps we will never know the real meaning of the Nazcalines.(H2/85)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된 shall과 will의 빈도는 <표18>과 같이 나타났다.

<표18> 1인칭 주어와 사용된 shall과 will의 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shall (%)	0	0	1	0	0	0	1 (9)
will (%)	0	0	0	2	6	2	10 (91)
shall(%) /will(%)	1/0			0/10			

will의 사용이 절대적이며, shall은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 1번 제시되었다. 이는 오늘날 will을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3.2.2 would와 used to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would와 used to에서 used to는 비격식체에서

흔히 사용된다(M. Hewings 1999: 38). 문장의 의미에 따라서 would 또는 used to를 선택해서 사용해야하는 경우가 있어 여기서는 둘 다 사용가능한 경우만을 조사하였다.

- (51) a. Every morning I **would** board the 8:15 train to London together with a swarm of other businessmen.(H3/127)
- b. In the past, career counselors ***used to*** classify aptitudes into two categories : mechanical and literary.(H1/219)

교과서에서 나타난 would, used to의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표19>와 같다.

<표19> would와 used to의 사용 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would (%)	0	0	0	2	2	4	8 (80)
used to (%)	0	1	0	1	0	0	2 (20)
would(%) /used to(%)	0 / 1			8(89)/1(11)			

교과서에서 used to의 사용은 2회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 would를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would에 비하여 used to의 사용 빈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3.3.2.3 may 와 can

허가(permission)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may와 can에 있어서 may는 격식의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 (52) a. No one can kill them for their beautiful fur.(M2/137)
- b. **May** I have attention, please?(M2/216)

(52a)는 동물보호를 위해 사냥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사람이 없다는 상황에서 사용된 것으로 can이 허가를 나타내고 있다.
 허가의 의미로 사용된 may와 can의 빈도는 <표20>과 같이 나타났다.

<표20> 허가의 may 와 can의 사용 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may	0	1	0	0	0	0	1
can	0	1	0	0	1	0	2
may/can	1 / 1			0 / 1			

교과서의 내용 중에 허가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 may는 1회, can은 2회로 전체적인 사용빈도가 아주 적게 나타났다.

3.3.2.4 will과 be going to

미래를 표현하는 will과 be going to에서 will은 격식에서, be going to는 비격식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어진다(M. Hewings 1999: 22).

- (53) a. Our flight time to New York **will** be 13 hours after take-off.
 (M2/216)

b. What **are** you **going to** take, Mike? (M1/143)

교과서에서 각각의 빈도를 살펴보면 <표21>과 같다.

<표21> will 와 be going to의 사용 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will (%)	0	1	5	6	8 (89)	2 (67)	22 (80)
be going to (%)	3	0	0	0	1 (11)	1 (33)	5 (20)
will(%)/ be going to(%)	6(67)/3(21)			16(89)/2(11)			

be going to가 사용된 빈도는 총 10회로 나타났으나 이들 중 주어의 의지, 현재상황에 근거한 미래 예측의 경우는 will이 사용될 수 없어 제외하였다. 또한 will도 be going to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인 개인적 견해 또는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예측, 발화시점에서의 화자의 결정 등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표21>에서 격식의 will이 80%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be going to는 낮은 빈도이지만 중학교 1학년 교과서부터 도입되고 있다.

3.3.2.5 조동사 have to 와 have got to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have to는 비격식체에서 have got to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54) a. I thought I would **have to** leave school.(H1/176)

b. My mother is mad at the dentist; she keeps saying, "He's

got to make a false tooth free of charge.”(H1/108)

교과서에서 사용된 have to와 have got to의 빈도는 <표22>와 같았다.

<표22> have to와 have got to의 사용 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have to (%)	3	5	2	7	8	2	27 (96)
have got to (%)	0	0	0	1	0	0	1 (4)
have to(%)/ have got to(%)	10 / 0			17(94) / 1(6)			

<표22>에서 처럼 비격식의 have got to는 단 1회만 사용되어 격식과 비격식을 비교하기가 어려우나 have to의 사용이 압도적이며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훨씬 많이 사용되었다.

3.3.3 관계사

3.3.3.1 관계사의 생략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리고 주격인 경우도 “there + be +명사구 + 관계절”구문에서 생략이 될 수 있다(Leech & Svartvik 1994: 286-287).

- (55) a. Another important program that KOICA has developed is the
“Dispatch of Medical Doctors.”(M3/238)

- b. The lesson () I have learned from this spring is that Hana should move forward, and that Hana students should keep up with good work.(M3/17)
- c. Then, there are some one billion people who learn and use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o have contact with people in other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usually to promote trade, scientific progress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in general.(H2/258)

(55a)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that이 생략되지 않은 경우이고 (55b)는 목적격으로 사용된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경우인데, 대부분의 경우 생략은 목적격에서 나타났다. (55c)에서는 there 구문에서 생략되지 않은 관계대명사 주격이다. 이러한 형태의 생략은 교과서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where, when, why도 (56a)와 같이 관계사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56b)처럼 격식의 ‘전치사+which’로 나타낼 수 있으며, (56c)처럼 비격식의 경우에는 생략되어질 수 있다.

- (56) a. This was the place where we first met.
- b. This was the place **at/in which** we first met.
- c. This was the place () we first met.

또한 why의 경우는 (57b)처럼 비격식에서 that이 대신 사용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M. Hewings 1999:144).

- (57) a. I didn't get a pay rise, but this wasn't the reason why I left.
 b. I didn't get a pay rise, but this wasn't the reason (*that*) left.

교과서에서는 격식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전치사+which’의 형태와 why는 사용되지 않아 (58a)와 (58b)처럼 비생략과 생략을 비교해 보았다.

- (58) a. He arrived at the palace where the king lived.(M3/178)
 b. The earth is the only place () we can live.(M2/236)

교과서에서 관계사가 생략되지 않은 빈도와 생략된 빈도를 살펴본 결과 <표23>과 같았다.

<표23> 관계사의 생략과 비생략 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생략 (%)	0	3	18 (67)	8 (57)	19 (73)	23 (74)	71 (68)
비생략 (%)	0	3	9 (33)	6 (43)	7 (27)	8 (26)	33 (32)
생략(%) /비생략(%)	21(24)/12(76)			50(35)/21(65)			

<표23>에 의하면 관계사가 중학교 2학년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생략과 비생략이 동시에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후의 학년에는 생략의 빈도가 68%로 비생략 32% 보다 높다는 점이 괄목할만하다. 이는 중학교부터 실제 비격식, 구어체 사용을 반영하여 교재 편찬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3.3.2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who*와 *whom*

관계대명사 *whom*은 아주 격식적인(very formal) 문체로 사용된다.

- (59) When I was in my twenties, I lived next door to a little boy
who I liked.(H1/262)

선행사가 사람일 때 규범문법에서는 목적격관계대명사 *whom*을 사용해야하는데도 주격관계대명사 *who*로 사용한 예로서 유일한 경우이며, 전치사+*whom*인 경우 목적격이 사용되는 이외에는 주격과 목적격에서 모두 *who*를 사용하는 것이 교과서에서도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3.3.3.3 관계사와 전치사의 위치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관계대명사가 사용될 때 격식에서는 ‘전치사+관계사’의 어순을 갖지만 비격식에서는 전치사가 문장의 마지막에 위치한다.

- (60) a. Then, as united body, the orchestra becomes the supreme
instrument **through which** the conductor presents the music.
(H2/37)
- b. One of them *which* we are most concerned *about* is that the
spread of English as a global lingua franca may lead to
linguistic imperialism, and eventually to the elimination of
other languages.(H2/260)

관계사와 전치사의 위치에 따른 격식과 비격식의 사용빈도는 <표24>와

같이 나타났다.

<표24> 관계사와 전치사의 위치에 따른 격식과 비격식의 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격식 (%)	0	0	1	1	1	1	4 (80)
비격식 (%)	0	0	0	0	1	0	1 (20)
격식(%) /비격식(%)	1 / 0			3(75)/1(25)			

<표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치사의 목적격이 되는 관계사의 사용은 총 5회로 많지 않았으나 ‘관계대명사+전치사’의 비격식이 1회, ‘전치사+관계대명사’의 격식이 4회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3.4 기타구문

3.3.4.1 분사구문

격식체에서는 부사절의 내용을 분사구문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 (61) a. **Seeing her so happy**, the king gave the shepherd the princess's hand in marriage right then and there.(M3/179)
 b. As the king saw her so happy, the king gave the shepherd the princess's hand in marriage right then and there.
- (62) a. **Dazed**, I walked back to the horse and wagon.(H1/265)
 b. As I was dazed, I walked back to the horse and wagon.

(61a)와 (62a)는 모두 분사구문이 사용된 격식체의 예이다. 이를 부사절로 나타낸 (61b)와 (62b)는 비격식체 또는 중간체에서 사용되어진다.

교과서에서 분사구문과 부사절의 사용빈도를 살펴 본 결과 <표25>와 같이 나타났다.

<표25> 분사구문과 부사절의 사용 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분사구문 (%)	0	1 (5)	4 (15)	12 (37)	16 (31)	34 (47)	67 (33)
부사절 (%)	0	18 (95)	22 (85)	20 (63)	36 (69)	39 (53)	135 (67)
분사구문(%) /부사절(%)	5(11) / 40(89)			62(39) / 95(61)			

분사구문은 중학교 2학년에서부터 제시되기 시작하여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격식체인 분사구문보다 부사절의 사용이 두 배로 많이 나타난다.

3.3.4.2 도치(Inversion)

문장 성분의 일부가 문두에 위치하여 주어와 동사 자리가 바뀌는 도치는 격식체에서 사용되어진다. 대체로 장소부사, 부정어구가 문두로 나오거나 가정법 문장에서 had, should, were가 문두로 나오는 경우에 주절의 주어와 동사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63) a. In front of each pot **was its sign**.(M2/58)

- b. However, nowhere **could they** find the things the king wanted.(M3/176)
- c. Then **came yesterday**.(H1/198)
- d. **Had Alex** asked, I would have been able to help.

가정법에서 조동사 had, should 또는 were가 앞으로 나오면서 주어 동사의 도치가 일어나는데 (63d)와 같은 도치는 교과서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전체 문장 수에서 도치가 일어난 문장의 수의 빈도는 <표26>과 같았다.

<표26> 도치구문의 사용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도치구문 (%)	0	1 (0.2)	3 (0.8)	5 (0.8)	3 (0.4)	9 (1.2)	21 (0.7)
전체문장 수	248	484	382	648	700	763	3,225
도치구문(%)	4(0.4)			17(0.8)			

도치구문은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분사구문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빈도는 0.7%에 지나지 않지만 고등학교 2학년만 제외하고는 빈도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격식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3.3.5 do so, do that, do it

대동사 do와 함께 사용되는 대명사 so, that, it에서 do so는 격식의 경우에 사용되나, 비격식에서는 do that, it을 사용된다.

- (64) a. Those who achieved high position **did so** because their family had the position before them.(M3/156)
 b. So, let's *do it* right again this year.(M3/ 218)

교과서에서 각각의 빈도를 살펴보면 <표27>과 같이 나타났다.

<표27> do so와 do that/it의 사용 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do so (%)	0	0	1	0	0	0	1 (14)
do that/it (%)	0	0	3	2	1	0	6 (86)
do so(%) /do that/it(%)	1 / 3			0 / 3			

<표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 이러한 대동사가 도입된 점이 특이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빈도는 얼마 되지 않지만 격식보다는 비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7 양태를 나타내는 구문

양태를 나타내는 부사의 경우 대개 -ly부사를 사용하나, 'in a~way/manner' 또는 'with + 추상명사'의 형태의 표현으로 격식체에서 주로

사용된다(Leech & Svartvik 1994: 101).

- (65) And if people have made mistakes that have hurt you or affected you negatively, you can apply this same philosophy to help you forgive those people so that you can move forward **with greater ease** and **confidence**.(H2/217)
- (66) These days, really amazing animals are helping these disabled kids **in very special ways**.(H1/152)
- (67) If you learn a subject easily and receive good marks in it over time, you probably have ability in that subject area.(H1/220)

각각의 빈도는 <표28>과 같았다.

<표28> 양태를 나타내는 형태에 대한 격식체의 사용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in a~ way/manner, with + 추상명사(%)	0	0	1	3	3	1	8 (7)
-ly부사(%)	1	2	15	17	27	44	106 (93)
in a~ way/manner, with + 추상명사(%) /-ly부사(%)	1(5) / 18(95)			7(7) / 88(93)			

대부분 -ly부사의 형태를 사용하여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격식체의 표현들은 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아주 낮게 나왔는데, 이는 문장구조의 복잡성이 격식체의 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듯하다.

3.3.8 목적을 나타내는 in order that~, so that~, so~

목적을 나타내는 in order that~, so that~, so~ 경우 in order that은 아주 격식적인 경우에 사용되며 so that은 격식체, so는 비격식체에서 사용된다(Leech & Svartvik 1994: 105).

- (68) a. This mental training also helps increase the students' self confidence **so that** they can win matches.(M3/57)
- b. We study the future so we can prepare for tomorrow.
(H1/21)

<표29> so that~, so~의 사용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so that~ (%)	0	0	1	0	1	0	2 (40)
so~ (%)	0	0	0	1	2	0	3 (60)
so that~/so~	1 / 0			1 / 3			

In order that은 교과서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so that~과 so의 교과서 내 사용빈도도 <표29>와 같이 아주 드물게 사용되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격식인 so that이 각각 한번 사용되었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비격식인 so가 3회 사용되어 완전형인 격식체를 먼저 익히고 난 후 생략형인 비격식체를 학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3.9 in the way(s), as 와 like

양태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에서 일반적으로 in the way(s)또는 as가 부사절을 이끌지만 비격식체에서는 like 또는 the way가 접속사처럼 사용되어 나타나고 있다(Leech & Svartvik 1994: 102).

(69) a. The tribal meeting provided an education just **as** school did.

(H1/177)

b. But it's not "practice" **in the way** we sometimes think
of picture.(H3/40)

c. Pook cooks turkey *the way* my mother did.

d. Pook cooks turkey *like* my mother did.

사용빈도는 <표30>과 같이 나타났으며, 비격식의 like, the way는 교과서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표30> in the way(s), as와 like의 사용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in the way(s), as	0	1	0	1	0	1	3
like	0	0	0	0	0	0	0
in the way(s), as / like	1 / 0			2 / 0			

3.3.10 as if(though) 와 like

as if(though)와 유사한 의미로 like는 비격식에서 사용되어진다.

- (70) a. Harry turned and looked at the stairs as though he had never seen them before.(H1/197)
 b. It was as if we had only four players instead of five.(H2/62)
 c. It looks *like* he's ill.

as if(though)와 비격식의 like의 사용빈도는 <표31>과 같이 나타났다.

<표31> as if(though)와 like의 사용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as if(though)	0	0	0	1	3	5	9
like	0	0	0	0	0	0	0
as if(though) /like	0 / 0			9 / 0			

<표31>과 같이 중학교에서는 접속사 as if(though)와 like가 사용되지 않았으나 고등학교에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as if(though)의 사용빈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격식의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like는 발견되지 않았다.

3.3.11 It ~ 분열문 (It ~cleft)

It~that의 분열문에서 that 대신에 which, who, when, where를 사용하거나, that이 생략되는 경우가 비격식체에서 나타난다(M. Hewings 1999: 236).

- (71) a. It is this sharing that helps to improve relations within the global village.(M3/239)
- b. It was the bus station () I meant.(H1/198)
- c. It was Lutz Long, the German track star, *who* was supposed to be Jesse's main rival.(H3/214)

<표32> It~분열문의 사용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중간체 (%)	0	0	1	1	2	0	4 (57)
비격식 (%)	0	0	0	2	0	1	3 (43)
격식 /비격식	1 / 0			3 / 3			

It~분열문의 사용빈도가 <표32>와 같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격식체, 비격식체의 대부분이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12 be 수동태와 get 수동태

일반적으로 수동태는 격식체에서 선호되는데, Leech & Svartvik(1994: 330)는 get +p.p형태의 수동태는 비격식체, 구어체에서 대개 행위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하였다.

- (72) a. Unlike language, however, laughter does not have to **be**

learned.(H2/15)

b. We all know that spring is when everything *gets started*.

(M3/17)

교과서에서 사용된 be 수동태와 get수동태의 사용빈도는 아래 <표33>과 같다.

<표33> be수동태와 get수동태의 사용 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be수동태 (%)	0	24	26 (96)	33 (92)	70 (93)	69	222 (96)
get 수동태 (%)	0	0	1 (4)	3 (8)	5 (7)	0	9 (4)
be 수동태 /get 수동태	50(98) / 1(2)			172(95) / 8(5)			

중학교 2학년부터 수동태가 제시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be 수동태(96%)가 절대적이며 get 수동태의 사용은 4%에 불과하였다. get 수동태는 고등학교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3.13 가정법

명령·요구·주장·충고 등의 의미를 가진 that절에서 격식에서는 동사의 원형을, 비격식에서는 현재형을 사용한다.

(73) In 1941, a college coach suggested that referees **toss** colored

flags instead.(H1/87)

격식의 경우에 사용되는 원형동사의 사용은 고1에서 1회, 고2에서 3회 제시되었으며 비격식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가정법을 나타내는 If절, I wish절에 be 동사가 사용되는 경우 were가 사용되지만, 비격식으로 주어가 단수일 때 was가 사용될 수 있다.

(74) Consider what the cost of air freight or air travel would be if each air plane were disposed of after a single flight.(H2/107)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74)와 같이 가정법문장에서 be동사가 사용된 경우는 오직 2문장만 나타났으며 모두 were가 사용되어 비격식의 was가 사용된 예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3.3.14 최상급 앞 the의 생략

형용사의 최상급 뒤에 명사나, 그 명사를 수식하는 제한절(defining phrase)이 없을 때 최상급 앞에 the가 비격식체에서 생략되어질 수 있다 (Martin H. 1999: 114).

(75) a. It was () cheapest.

b. They made pottery and cloth so much detail and color that it is believed to be some of the best ever made.(H2/85)

c. "Our little Louis, he's the best!" they shouted.(H3/61)

(75)의 a는 비격식체에서 the가 생략된 예이며, b와 c는 a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예문이다. the가 생략되어있는 문장은 교과서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3.3에서는 격식과 비격식에 따른 구조적 특징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대체로 비격식의 구문적인 특징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비격식의 특징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사용빈도가 높았다. 이렇게 구문에 있어서 비격식체의 사용빈도가 낮은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이 문법의 규범적 성격을 중시하고 있어 비격식의 표현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어 학습에서 이러한 규범 문법을 습득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교재편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3.4 일상생활의 기본표현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말들 중에는 고정된 표현들이 많이 있다. 아래와 같은 표현들 역시 격식, 비격식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게 된다(Leech & Svartvik 1994, 강종덕 1987).

만났을 때 **Good morning/afternoon/evening.**

Hi.

헤어질 때 **Good-bye.**

bye/ so long/ see you.

소개할 때	May I introduce ~ / I'd like to introduce~ <i>Do you know ~ / Meet my ~</i> <i>/ I don't think you know~</i>
소개 후 인사	How do you do? <i>Hello, Hi.</i>
안부를 물을 때	How have you been? <i>How things ~? / How are you getting on/along?</i>
안부를 전할 때	Please give my regards to~ Please give my wishes to~ <i>give my love to ~ / Say hello to ~</i>
감사	I appreciate~ <i>Thanks</i>
사과 · 후회	I regret~ <i>(I'm) sorry ~</i>
조의표시	Please accept my sympathy ~ <i>I was sorry ~</i>

위의 표현들 중에서 교과서에서 사용된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 (76) *Hello!* This is my dog, Jun.(M1/35)
- (77) *Hi.* I'm Hong Mi-na.(M1/17)
- (78) *Sorry,* I have no idea.(M3/78)
- (79) *Sure,* Mr. Davis.(H2/60)
- (80) **Good afternoon,** folks.(H2/103)
- (81) Later that night, I **regretted** what I had said at my friend's

house. (H3/150)

(82) What *on earth* are you looking at?(H3/82)

(83) What has *taken your goat*?(H3/214)

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상생활의 기본표현에서 사용된 있는 격식과 비격식의 사용빈도를 살펴보면 <표34>와 같다.

<표34> 일상생활 기본표현의 격식과 비격식 사용빈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격식 (%)	0	2	0	0	2	1	5 (24)
비격식 (%)	5	4	1	1	1	4	16 (76)
격식 /비격식	2(17) / 10(83)			3(33) / 6(67)			

<표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일상생활의 기본적 표현에서는 비격식의 표현들이 거의 3/4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교과서의 인사말과 사과, 감사에 대한 의사소통이 대체로 친근한 사람들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학교의 비격식 표현들이 83%로 고등학교의 53%보다 높은 이유는 일상생활의 기본표현에서는 비격식체가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이기에 저학년에서 도입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 사용된 격식과 비격식의 빈도를 어휘와 구조, 일상생활의 기본 표현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표35>와 같다.

〈표35〉 교과서에서 사용된 격식과 비격식의 빈도

격식성 구분	격식 (%)	비격식 (%)	계 (%)
어휘	331 (29)	829 (71)	1,160 (100)
구조	537 (68)	247 (32)	784 (100)
일상생활의 기본표현	5 (24)	16 (76)	21 (100)
계	873 (44)	1,092 (56)	1,965 (100)

〈표35〉에 의하면 전체적인 격식과 비격식 사용빈도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어휘와 일상생활의 기본 표현에 있어서는 비격식이 각각 71%와 76%, 구조에 있어서는 오히려 격식이 68%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사용된 격식과 비격식의 사용빈도를 비교해 〈표36〉과 같이 나타났다.

〈표36〉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의 격식과 비격식의 빈도 비교

격식성 구분	격식	비격식	계
중학교	251 (46)	293 (54)	544 (100)
고등학교	622 (44)	799 (56)	1,421 (100)
계	874 (44)	1,092 (56)	1,965 (100)

〈표36〉에 의하면 격식과 비격식의 사용빈도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비격식이 55%로 격식보다 다소 높긴 해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자료를 통해서 격식성을 파악해 보았다. 어휘, 문법적 구조 그리고 일상생활에 빈번히 사용되는 기본 대화를 중심으로 표현양식에서 나타난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빈도수를 조사하여 우리의 영어교과서가 격식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전체 1,965개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호칭 등을 포함하는 어휘와 기본적인 대화들의 고정된 표현들은 비격식체가 71%와 76%로 대부분인데 비해, 오히려 문법 구조적 측면에서는 격식체가 68%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둘째, 비격식체의 빈도가 중학교 54%, 고등학교 56%로 격식체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사용된 격식성의 분포는 대동소이했다. 이는 외국어의 격식성에 대한 교육에 있어 자연스러운 언어습득과 유사하게 비격식체에서 격식체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Bowen(1963)의 주장을 고려할 때 중학교에서 비격식의 표현들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교과서에서 수집한 격식과 비격식의 자료의 사용빈도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격식성 지도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비격식체에서 격식체로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학습 자료와 교수 방법을 개발·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도입에 있어 적절한 단계를 고려하여 교과서

편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격식성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표현양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종덕. (1987). “영어 표현 양식 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교육대학원, 부산.
- 교육부 (1997). *외국어과 교육과정(I),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별책14)*,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전춘배. (1999). “무주어문” *영미어문학*. 제41집, 255-278
- 조용남. (1993). “영어통화에 있어서의 격식성과 정중성의 표현양식” *교육논총*. 제20집, 103-128
- 홍병호. (1992). “영어와 한국어에 있어서의 문체와 ‘Politeness’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 Macmillan English Dictionary* (2002). Houndmills: Macmillan Publishers.
- Bowen, J. D. (1963). Linguistic variation as a problem in second language teaching In Allen and Campbell(eds.)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New Delhi: TATA McGraw-Hill Publishing Company, Ltd(1965), 242-250.
- Geoffrey Leech & Jan Svartvik (1994). *A Communicative Grammar(2nd.)*. New York: Longman.
- Gleason H. A.Jr. (1965). *Linguistics and the English Gramma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Joos, M. (1961). *The Five Clocks*.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 Liles, Bruce L. (1972). *Linguistics and the English Language*:

Transformational Approach. California: Goodyear Publishing Company, Inc.

Martin Hewings. (1999). *Advanced Grammar in Us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Rivers, Wilga M. (1968).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ivers, W. R. and Temperley, M. (1978). *A Practical Guide to the Teaching of Englis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